

차든지 덤든지 하라

계 3:14~22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아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누리교회를 세워 주셨을까요? 둘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온누리교회에 다니십니까? 셋째, 온누리교회의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촉추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제가 영국에서 귀국했을 때 교회를 개척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고 일년 동안 고심했습니다. 서울 서빙고동에 교회를 세워야 할 분명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다가 건강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두 번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어서 또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파, 제도, 방법에 의한 사람의 교회가 아닌 2천년 전에 로마를 뒤집어 놓았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원하셔서 이 곳에 '온누리교회'라는 깃발을 꽂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희망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가정, 사회, 국가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도 바로 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도덕적·영적 가치가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와 크리스천이 많지만 올바른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 사람들은 영적 가뭄 현상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파나 제도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온누리교회에 다니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먼 곳에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말씀처럼,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좀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과 기적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령충만한, 능력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온누리교회의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온누리교회를 통해 민족과 열방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해야 합니다. 세상은 구원받아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립 18주년을 맞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또 온누리교회 성도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뤄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너져 가는 도덕, 윤리, 가치가 온누리교회를 통해 변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자는 임신하면 뱃속의 아이를 잊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아이를 목상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생각으로 머물게 아니라 잉태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고 말을 해야 합니다. 비전은 이뤄진 것들이 아니라 이뤄질 것들입니다. 따라서 비전이란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교회로 세상은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실행해야 합니다. 비전이 실행될 때마다 새로운 비전을 잉태하게 됩니다. 비전으로 축제를 즐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뜻뜻미지근한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교인들을 가리켜 뜻뜻미지근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7통입니다. 그 중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량주의에 빠져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사자란 지도자, 사역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국가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살면 조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직, 가정, 사회, 국가의 지도자가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리더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게으르고 나태하며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면 가정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회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헌신적이라면 나라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교회의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셋째,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아멘'이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충성되고 변함이 없으며 신실하신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창조의 근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리더의 믿음이 뜻뜻미지근하고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헌신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거듭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교회의 리더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은 18주년을 맞은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부자이고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역도 있는,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도 온누리교회를 칭찬하실까요? 그것은 의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대형 교회, 부자 교회, 많은 것을 가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우리는 기득권을 갖고 안주하길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성취감에 도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더러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당했던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 민족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난리통에 먹을 것을 얻으려고 강통을 들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부자가 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처음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족이 가난했을 때가 더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한국의 부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맨주먹을 불끈 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성공하니까 이혼을 합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게 되면서 우리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안일해졌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온누리교회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년 동안 잘 해 왔지만 지금 안주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희생 없이 누리려고만 하는구나.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구나.' 주님께서 온누리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헌신, 충성, 희생, 고통, 목마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사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저는 온누리교회가 주님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입에 들어간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 인체에 피와 살이 돼야 합니다. 만약 토해 내치지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라오디게아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돈, 건물, 인재, 프로그램 등 모든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온누리교회도 본의 아니게 부자 교회,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18주년을 맞은 온누리교회의 리더들과 성도에게 이 위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써 교회를 개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경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너의 영적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돈, 명예, 성공에 눈멀었다고 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난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 ‘주님으로부터 순결한 정금을 사서 다시 사역을 만들어라’. 둘, ‘순결한 신부의 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가려라’. 셋, ‘안약을 사서 발라 영적 눈을 떠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은 칭찬이지만, 때로 책망이며 채찍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어쩌면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채찍을 맞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혼란기에 교회의 역할을 추궁하십니다. 온누리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이고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대표해 책망을 듣고 채찍을 맞으며 징계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18주년 기념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뜻뜻미지근한 온누리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 열심을 내십시오. 기득권을 갖고 누리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처음 교회를 개척하던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안일하게 생각지 마라, 깨어 기도하라, 자기를 희생하라,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전도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초청 메시지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며 뜻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이 충추시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밖에 서 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둘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뜨뜻미지근하지 말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헌신하라, 순교하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셋째, 초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네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진 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슴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8주년을 맞은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성숙한 온누리교회가 되어 합시다.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창립 18주년을 맞아

온누리교회는 성인의 나이에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